

상해·질병까지 신탁범위 확대… 약관대출 규제 완화해야

‘보험금청구권신탁’ 유연화 과제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 도입
유족 생활안정, 신탁 전문성 향상

관리형 신탁 ‘신탁자문사’ 도입을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규정 필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으로 도입되면서 개선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거액을 받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전문 수탁자가 사후 보험금을 보관·관리하고 유족의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틀이 핵심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운용·관리하게 하고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상속인(수익자)에게 주는 신탁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상속·자산관리 수요 확대 속에서 보험금청

구권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탁의 유연성을 살리되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보호와 활용성을 함께 높이자는 것.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자산관리 취약계층 유족을 염두에 두고 신뢰 가능한 수탁자가 보험금을 받아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운용이 없는 ‘관리형 신탁’이므로 증권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해 ▲최소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의 동일성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으면 신탁 설정이 불가하다는 규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

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개선으로 유족 생활 안정과 신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대만 등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해 최소 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까지 신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제도는 대출이 존재하면 아예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다. 상환 후에도 무효가 되는 등 계약자 권리 제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처럼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이 줄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는 등 사전에 정한 한도내 대출을 허용하고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

로 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권유 자격은 ‘투자성 신탁’ 전제를 벗어나 관리형 신탁에는 보험 설계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투자성 신탁 전담을 위한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과 간소화된 교육·시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불공정영업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조항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융자·보증과 신탁 권유의 결합으로 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가 강제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광은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KB국민카드는 오는 11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소상공인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 혜택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KB전통시장 온누리카드’로 건당 1만원 이상을 KB Pay로 결제하면, 누적 금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5% 캐시백을 11월 말까지 매월 제공한다.

비씨카드

소상공인 매출증대 위해 로컬 브랜드 이용 할인

비씨카드는 내수 경기 회복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로컬 브랜드 상권’ 이용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이태그를 등록한 고객이 8개 로컬브랜드 상권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상권별 인당 7000원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최대 5만 60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마이태그는 사용자가 원하는 할인 또는 이벤트를 페이스북에서 미리 신청하면, 해당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할인 또는 적립 등을 제공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

자립청년 사회정착 지원 5일 온라인 금융콘서트

신한카드가 9월 5일 ‘아름인 금융아카데미’ 일환으로 ‘2025 온라인 금융 콘서트’ 2회차를 개최한다. 아름답인 금융아카데미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올바른 경제 지식과 금융 역량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금융 콘서트에서는 유튜브 브금유튜버 전문 채널 ‘박곰티TV’의 박동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내 인생을 바꿔줄 4개의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도적인 비용 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한다.

참여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온라인 금융 콘서트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을 비롯해, 서울시와 협력해 모집한 20대 청년층과 ‘아름인도서관’이 설치된 군부대 장병들까지 참여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하나금융그룹, ‘내집 연금’ 등 대학생 아이디어 호응

19기 49명 스마트 홍보대사 해단식
베트남 ‘하나 해피 클래스’ 봉사 참여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해단식을 가졌다.

31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이번 19기까지 누적 1060명의 대학생들이 활동을 수료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최고 경쟁률 33대 1을 기록하며 금융권을 선도하는 대표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로 선발된 49명의 대학생들은 2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및 체험 ▲그룹 스포츠단 연계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그룹 봉사활동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등 다방면의 활동 미션을 통해 그룹과 청년세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스마트 홍보대사들은 톡톡 튀는 대학



스마트 홍보대사들이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 투응초등학교(Tu Cuong Primary School)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 봉사를 통해 글로벌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생만의 시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었다. ‘해외 주식 전용 통장, 트래블로그 카드, 내집 연금’ 등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하나더넥스트, 하나더이지, 하나더소호’ 등 그룹 브랜드 홍보, 금융 AI 활용방안,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사업 기획안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ESG·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그룹의 미션 실천과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19기 스마트 홍보대사들은 베트남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 봉사활동에 전원 참여해 낙후된 취약지역 학교 아동들을 위해

글로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하나금융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패기로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 활동을 성료했다”며 “스마트 홍보대사의 활동은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9월 첫주, 전국 8개 단지서 9377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9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8개 단지 총 9377가구(일반분양 583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경기 용인시 고림동 ‘용인고진역대광로제비방’,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 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건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2곳이 개

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춘천레이크시티2차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44㎡, 총 218가구 규모다. 경춘선 춘천역·남춘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예정)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두산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에서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한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우리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GPT 넘어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

우리은행은 인공지능 전환(AI) 전략의 핵심 인프라인 ‘생성형 AI 플랫폼(Gen-AI 플랫폼)’을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공개한 ‘Gen-AI 플랫폼’은 내부 전용망의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자원 확장의 유연성을 지닌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로 설계됐다. GPT와 같은 상용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AI 모델까지 폭넓게 활용하

는 개방형 환경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Gen-AI 플랫폼’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올 4분기 중으로 ▲주택청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청약 상담원 ▲창의적 이미지 생성 서비스 W-Sketch ▲로보어드바이저의 생성형 AI 적용 확대 등 혁신적인 대고객 및 대직원 서비스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사적 AI 대전환 추진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